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Mental Disability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Hyeun Sil Kim¹

김현실¹

¹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ongho University, Korea, hskim@songho.ac.kr

Abstract: The proper view and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toward individuals with mental disability is crucial, since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nurses" regarding mental disease can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early identifica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Confirming nursing students'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individuals with mental disorders was the goal of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In this study, 160 nursing students from S University in Gangwon-do participate. The data were gathered using SPSS/Win 29.0 between December 20 and December 30, 2022. The study discovered that nursing students had a favorable opinion of and attitude toward those with mental illnesses, and that the main educational experiences pertaining to human rights and religion had an impact on the perception. The primary variable impacting attitude could not be identified.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sub factors of perception were risk factors, which indicates that the higher the perception score for risk factors, the more negative the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disabled. Consequently, it was confirmed that different approaches are needed in order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knowledge of nursing students and to contact the mentally disabled. Therefore, various programs must be developed to help nursing students resolve prejudice against the mentally disabled and strengthen their positive attitude toward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Keywords: Nursing Students, Mental Disability, Perception, Attitude

요약: 정신질환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태도는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강원도 S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 160명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12월 20~30일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9.0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식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종교와 인권관련 교육 경험이었다. 태도에 미치는 주요 요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 대상자의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식의 하부요인은 위험요인으로 나타나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점수가 높아질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지식을 증진시키고, 정신장애인과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간호대학생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장애인과 함께 할 수

Received: August 29, 2023; 1st Review Result: October 01, 2023; Accepted: November 25, 2023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핵심어: 간호대학생, 정신장애, 인지, 태도

1. 서론

정신질환을 가진 정신장애인은 정신증상 대처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통합하는데 장애가 되어 사회복귀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1][2]. 최근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3], 아직 우리나라에 만연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정신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사회복귀를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4][5]. 2021년 우리나라 정신건강실태보고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7.8%, 1년 유병률은 8.5%로,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사람 중 12.1%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난 1년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또한 7.2%로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6].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들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서비스 이용을 고민하는 이유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7].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통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에 노력한 결과, 정신질환은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과 회복이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8], 여전히 “정신장애인은 위험하거나 난폭하며 범죄를 잘 저지른다”거나, “엉뚱하여 사회적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편견이 지배적이다[9]. 또한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의 가해자로 조현병 환자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사건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인식개선은 더욱 필요하다[10]. 정신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가 갖는 전반적 태도는 다른 장애를 가진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불쌍하다고 느끼면서도 실질적으로 자신과의 개인적 관계를 갖는 것이나 지역에 정신장애 관련시설이 들어오는 것에는 부정적이다[11].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을 받는 현상을 낙인(stigma)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정신장애인들은 낙인을 경험하면서 정신건강서비스 돌봄을 구하거나 참여를 기피하며, 결과적으로 치료를 지연하고 재활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의대생이나 보건계열 학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3]. 정신보건영역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14]. 관계를 중요시하는 정신보건사업에서[14] 보건의료인의 편견이나 부정적인 태도는 정신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신질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도이며[16],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해 덜 권위적이고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4]. 특히 간호사는 대상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17][18], 미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추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13].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간호대학생 연구는 대부분 정신간호 실습 후 태도변화[19-23],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행동 영향[15]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렇게 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2주~3주간의 임상실습기간과 대부분 지역사회가 아닌 임상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 회복과 사회재활이라는 경험을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임상실습만으로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전 간호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나 태도와 관련된 요인을 알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학생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2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여 향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강원도 S군 소재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자를 연구대상자로 설정하였다. 연구참여의사를 밝힌 160명에게 연구목적, 자료 활용 범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22학년도 12월 20일부터 30일이었다. 회수된 160개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5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상관분석을 위한 표본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95%의 검정력으로 표본크기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수가 160명이므로 필요한 표본 수는 충분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정신장애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정남(2003)이 개발한 낙인척도를 사용하였다[24]. 이 척도는 편견과 차별행동의 2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영역(인식)은 총 23문항으로 3개 하위영역(위험 8문항, 회복불능 10문항, 식별가능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거의 그렇지 않다(1점)’, ‘조금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3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높음을 나타낸다. 김정남(2003)의 연구에 의하면 위험 요인 Cronbach's α .785, 회복불능 요인 Cronbach's α .784, 식별가능 요인 Cronbach's α .6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12로, 위험요인 Cronbach's α .879, 회복불능요인 Cronbach's α .789, 식별가능 요인 Cronbach's α 는 .844이었다.

2.4.2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정남(2003)이 개발한 낙인척도를 사용하였다[24]. 이 척도는 편견과 차별행동의 2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행동은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의 응답을 ‘예(0점)’, ‘아니오(1점)’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동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정신장애인과는 모임의 구성원, 직장 동료, 이웃, 친구로 함께 지낼 수 없고, 그들을 위한 시설을 동네에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정남(200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3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50이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정신장애인의 인식 및 태도는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인식 및 태도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t-test 또는 ANOVA 분석을 통해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실시하였다. 정신장애인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다.

2.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설문지 배부 시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정보의 비밀보장과 설문 도중 원하면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으며,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응답 중 중단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대상자의 익명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설문지에 명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전 과정에서 대상자의 안전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37명(24.3%)과 여자 115명(75.7%)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114명(75.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9명(12.55), 50대 이상이 10명(6.6%)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3학년 60명(39.5%), 2학년 46명(30.3%), 1학년 17명(17.8%), 4학년 19명(12.5%) 순이었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9명(58.6%),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3명(41.4%)이었다. 부모님 경제 수준은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19명(7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 17명(11.2%), 하 16명(10.5%)이었다. 인권관련 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08명(71.1%)이었으며,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44명(28.9%)이었다.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5명(62.5%), 없다는 응답이 57명(37.5%)이었다. 장애인 가족이 있는가 하는 응답에는 대부분이 없다 응답한 경우가 139명(91.4%)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52)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37(24.3)
	Female	115(75.7)
Age (year)	≤29	114(75.0)
	30-39	19(12.5)
	40-49	9(5.9)
	>50	10(6.6)
Grade	1st	27(17.8)
	2nd	46(30.3)
	3rd	60(39.5)
	4th	19(12.5)
Religion	Yes	63(41.4)
	No	89(58.6)
Financial status of family	High	17(11.2)
	Middle	119(78.3)
	Low	16(10.5)
Experience of education for human rights	Yes	108(71.1)
	No	44(28.9)
Volunteer experience	Yes	95(62.5)
	No	57(37.5)
Whether or not there is a family member with a disability	Yes	13(8.6)
	No	139(91.4)
Total		152(100.0)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점수를 분석한 결과, 인식의 평균 점수는 1.16 ± 0.47 점으로 나타났다. 인식의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위험요인은

1.36±0.61점, 회복불능요인 1.07±0.47점, 식별가능요인 1.03±0.60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 인식과 태도

[Table 2]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Recognition		Attitude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37(24.3)	1.14±0.55	-0.35 (.723)	0.17±0.32	1.45 (.153)
	Female	115(75.7)	1.17±0.44		0.39±0.26	
Age (year)	≤29	114(75.0)	1.13±0.46	2.33 (.077)	0.40±0.28	0.16 (.920)
	30-39	19(12.5)	1.24±0.45		0.43±0.23	
	40-49	9(5.9)	1.08±0.25		0.43±0.32	
	>50	10(6.6)	1.51±0.59		0.46±0.33	
Grade	1st	27(17.8)	1.22±0.50	0.42 (.736)	0.41±0.29	0.72 (.541)
	2nd	46(30.3)	1.11±0.48		0.36±0.28	
	3rd	60(39.5)	1.16±0.41		0.43±0.28	
	4th	19(12.5)	1.22±0.55		0.46±0.26	
Religion	Yes	63(41.4)	1.28±0.52	2.58 (.011*)	0.42±0.29	0.19 (.844)
	No	89(58.6)	1.08±0.40		0.41±0.28	
Financial status of family	High	17(11.2)	1.36±0.59	1.65 (.195)	0.44±0.30	0.19 (.825)
	Middle	119(78.3)	1.14±0.45		0.40±0.27	
	Low	16(10.5)	1.13±0.42		0.43±0.32	
Experience of education for human rights	Yes	108(71.1)	1.11±0.45	-2.14 (.033*)	0.39±0.27	-1.27 (.203)
	No	44(28.9)	1.29±0.49		0.46±0.29	
Volunteer experience	Yes	95(62.5)	1.15±0.48	-0.58 (.557)	0.40±0.28	-0.48 (.628)
	No	57(37.5)	1.19±0.44		0.42±0.28	
Whether or not there is a family member with a disability	Yes	13(8.6)	1.20±0.37	0.31 (.757)	0.34±0.24	-0.85 (.393)
	No	139(91.4)	1.16±0.47		0.42±0.28	
Total		152(100.0)	1.16±0.47		0.41±0.28	

*p<.05, **p<.001

(1.14±0.55)가 여자(1.17±0.44) 보다 인식의 정도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을 분석한 결과 40대(1.08±0.25)의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20대(1.13±0.46), 30대(1.24±0.45), 50대 이상(1.51±0.59)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1.11±0.48), 3학년(1.16±0.41), 1학년(1.22±0.50), 4학년(1.22±0.55), 순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를 분석하였을 때 종교가 있는 경우(1.28±0.52)가 없는 경우(1.08±0.40)보다 높았으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인식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8 p=.011). 부모님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1.36±0.59)가 점수가 가장 높았고 중(1.14±0.45), 하(1.13±0.42)의 순으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인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인권관련 교육 경험에서는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1.11±0.45), 없는 경우(1.29±0.49) 보다 인식이 좋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14, p=.033$).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있는 경우(1.15±0.48), 없는 경우(1.19±0.44)로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인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장애인 가족 유무를 보았을 때 있다(1.20±0.37)고 응답한 경우보다 없다(1.16±0.47)고 응답한 경우 인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 인식을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의 경우 회복불능요인에서 20대 1.02±0.46점, 50대 이상 1.51±0.58점으로 두 연령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67, p=.014$). 즉, 연령이 높을수록 회복불능요인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서는 3가지 하위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정신장애인 인식에 대한 요인 별 분석

[Table 3] Analysis of Mental Disability Perception by Factors

Variables		n(%)	Perception					
			Risk factors		Irrecoverable factor		Identifiable factors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Gender	Male	37(24.3)	1.26±0.71	-1.20 (.231)	1.08±0.54	0.05 (.959)	1.08±0.66	0.58 (.558)
	Female	115(75.7)	1.40±0.57		1.07±0.44		0.01±0.58	
Age (year)	≤29	114(75.0)	1.35±0.58	0.957 (.415)	1.02±0.46	3.67 (.014*) d>a	0.98±0.62	1.37 (.254)
	30-39	19(12.5)	1.41±0.61		1.16±0.42		1.12±0.53	
	40-49	9(5.9)	1.15±0.51		1.06±0.18		1.02±0.32	
	>50	10(6.6)	1.61±0.94		1.51±0.58		1.36±0.57	
Grade	1st	27(17.8)	1.39±0.60	0.18 (.908)	1.18±0.54	0.71 (.546)	1.04±0.61	0.97 (.404)
	2nd	46(30.3)	1.31±0.64		1.03±0.47		0.96±0.61	
	3rd	60(39.5)	1.40±0.58		1.05±0.42		1.00±0.55	
	4th	19(12.5)	1.34±0.65		1.12±0.50		1.24±0.71	
Religion	Yes	63(41.4)	1.48±0.67	2.05 (.042*)	1.17±0.51	2.26 (.025*)	1.18±0.62	2.75 (.007**)
	No	89(58.6)	1.28±0.54		1.00±0.42		0.91±0.56	
Financial status of family	High	17(11.2)	1.60±0.71	1.50 (.225)	1.27±0.61	1.75 (.176)	1.16±0.62	0.47 (.622)
	Middle	119(78.3)	1.33±0.60		1.06±0.45		1.01±0.58	
	Low	16(10.5)	1.39±0.50		0.99±0.39		1.00±0.70	
Experience of education for human rights	Yes	108(71.1)	1.32±0.59	-1.48 (.140)	1.02±0.44	-2.10 (.037*)	0.96±0.57	-1.99 (.048*)
	No	44(28.9)	1.48±0.62		1.20±0.52		1.18±.66	
Volunteer experience	Yes	95(62.5)	1.35±0.62	-0.37 (.707)	1.06±0.49	-0.59 (.554)	1.00±0.60	-0.57 (.566)
	No	57(37.5)	1.39±0.58		1.10±0.43		1.06±0.61	

Whether or not there is a family member with a disability	Yes	13(8.6)	1.44±0.44	0.45 (.650)	1.16±0.41	0.73 (.466)	0.90±0.44	-0.76 (.446)
	No	139(91.4)	1.36±0.62		1.06±0.47		1.04±0.61	
Total		152(100.0)	1.36±0.61		1.07±0.47		1.03±0.60	

* $p < .05$, ** $p < .001$

3.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의 정신장애인 태도 평균점수는 0.41 ± 0.28 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서는 남자(0.17 ± 0.32)가 여자(0.39 ± 0.26) 보다 점수가 높아, 남자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에서는 20대(0.40 ± 0.28), 30대(0.43 ± 0.23), 40대(0.43 ± 0.32), 50대 이상(0.46 ± 0.33)으로 나타나 20대의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0.41 ± 0.29), 2학년(0.36 ± 0.28), 3학년(0.43 ± 0.28), 4학년(0.46 ± 0.26)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의 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0.42 ± 0.29)가 없는 경우(0.41 ± 0.28)보다 높았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상’ (0.44 ± 0.30)이 점수가 가장 높았고 ‘중’(0.40 ± 0.27), ‘하’(0.43 ± 0.32)의 순이었다. 인권관련 교육 경험에서는 있다(0.39 ± 0.27)가 없다(0.46 ± 0.29) 보다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0.40 ± 0.28), 없다(0.42 ± 0.28)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족 유무를 보았을 때 있다(0.34 ± 0.24)고 응답한 경우가 없다(0.42 ± 0.28)고 응답한 경우보다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4 정신장애인 인식 및 태도의 상관성

조사대상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r = .557$, $p < .001$)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부분은 하위영역인 위험요인, 회복불능, 식별가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정신장애인 인식의 3개의 하위영역 모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위험요인 $r = .524$, $p < .001$ 회복불능 $r = .450$, $p < .001$ 식별가능 $r = .448$, $p < .001$), 정신장애인 인식의 3개 하위 영역간에는 위험요인과 회복불능($r = .559$, $p < .001$), 식별가능과 위험요인($r = .448$, $p < .001$), 식별가능과 회복불능($r = .735$, $p < .001$)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정신장애인 인식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가 없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에서 오차항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Durbin-Watson Test의 값은 2.138이므로 오차항 간에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0.416-0.663으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508-2.406으로 10보다 큰 변수는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어 회귀분석의 모든 가정이 충족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하부요인은 위험요인($\beta=.173,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점수가 높을 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23.560, p<.001$), 이들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30.9%였다[표 4].

[표 4] 정신장애인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Factors Affecting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B	β	t	p	VIF
(Constant)	.018		.341	.734	
Risk factors	.173	.371	4.464	<.001	1.508
Irrecoverable factor	.071	.118	1.126	.262	2.406
Identifiable factors	.080	.169	1.668	.097	2.254

F=23.560(<.001), R²=.323, Adjusted R²=.309, Durbin Watson=2.138

4. 논의

정신전문의의 태도는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 건강관리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간호사들 사이의 부정적 태도와 낙인은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간호중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교육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의 비율이 75.7%로 높았으며, 연령은 29세 이하, 학년은 2학년과 3학년이 가장 많았다. 또한 종교는 없는 경우가 약간 많았다. 이에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점수는 1.16점, 태도는 0.41점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적고,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인식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낮음을 의미하며, 태도 척도 또한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인식의 하위영역별로 분석하였을 때 위험요인 1.36점, 회복불능요인 1.07점, 식별가능요인 1.03점으로 3가지 하위요인에 있어서도 편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 편견과 태도를 다룬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다[16]. 조사대상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종교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연령, 학년이 정신장애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남학생의 인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인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11]. 연령에서는 20대와 40대의 인식 점수가 가장 낮아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도 선행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정신장애인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20대가 가장 낮은 편견을 보이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더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는데[11][25], 연령이 높아질 수록 개인적 경험에 따른 부정적인 신념이 증가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연구들은 일반인, 대학생, 간호사, 간호대학생,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문요원,

행정직원 등 다양한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성별이나, 교육배경, 자원봉사 유무, 장애인 접촉 경험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을 보고하고 있다[19][26-28].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 인식 영향요인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종교가 유일하였는데 종교가 없다는 응답자에서 인식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종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정신간호학 이론이나 실습을 하지 않은 2학년이 이론과 실습이 진행된 3, 4학년을 비교해보았을 때 2학년의 편견점수가 낮았다. 이는 기존의 정신실습 후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19][20][26]. 이는 정신간호학 실습이 정신장애인과 접촉이나 만남에 집중하지 않고, 임상실습을 수업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거나, 지역사회 정신보건 개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대부분 질환중심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폭 넓게 지역사회 정신보건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여 실습을 통한 정신장애인 접촉 유무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29], 이에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이나, 대학생의 자원봉사 경험, 잦은 접촉은 정신장애인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11][29]. 또한 자신이나 가족의 정신질환 경험도 정신장애인 인식에 영향을 미쳐 편견을 낮춘다[11]. 본 연구결과에서도 인권관련 교육이나 봉사활동, 장애인 가족 유무에 따른 인식을 확인하였을 때 인권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 관련 자원봉사 기회를 늘려 만남의 빈도를 늘리고, 다양한 접촉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들과의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에서 정신장애인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며, 정신질환자의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회복지향적 사고방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27].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에게 다양한 매체나 대상자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성별의 경우 여자, 연령의 경우 20대가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과 2학년에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신간호학 실습을 경험한 3, 4학년보다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에 따른 태도의 변화를 다른 연구결과에서 실습 후 태도가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거나[21],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17] 결과가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다. 태도란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특정 대상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속적으로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2주 실습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태도의 변화를 갖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반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태도가 긍정적이었는데 인권교육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정신장애인 옹호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17],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인권감수성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1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회복불능요인에서 20대와 50대 이상의 두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없는 군에서 위험요인, 회복불능요인, 식별가능요인 등 3가지 하위영역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인권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군에서 식별가능요인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6].

조사대상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연구한 선행연구[16]에서도 인식과 태도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분을 하위영역인 위험요인, 회복불능, 식별가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3개의 하위영역 모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인 인식의 3개 하위영역간에는 위험요인과 회복불능, 식별가능과 위험요인, 식별가능과 회복불능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하부요인은 위험요인($\beta=.173, p<.001$)이었다. 이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점수가 높을 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정신건강 지식,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정신장애를 바르게 인식하고, 정신장애인과 접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종교와 인권관련 교육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영향요인이 없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간의 상관성에서는 인식이 긍정적일 수록 태도가 긍정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위험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긍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신장애 대상자와 함께 할 수 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최근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의 결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아직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정신장애인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하고,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일반적 특성이나 영향요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인식의 경우 종교의 유무와 인권관련 교육경험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과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인권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건강이해력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편견에 대해 확인하고,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6.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23년도 송호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References

- [1] P. W. Corrigan, B. G. Druss, D. A. Perlick, The impact of Mental illness stigma on Seeking and Participating in Mental health care,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2014), Vol.15, No.2, pp.37-70.
DOI: <https://doi.org/10.1177/1529100614531398>
- [2] N. Rüsçh, M. C. Angermeyer, P. W. Corrigan, Mental illness stigma: Concepts, consequences, and Initiatives to Reduce stigma, *European psychiatry*, (2005), Vol.20, No.8, pp.529-539.
DOI: <https://doi.org/10.1016/j.eurpsy.2005.04.004>
- [3] H. A. Ji, S. R. Kim, M. S. Lee, S. H. Park, Y. S. Kim, K. H. Lee, J. Y. Jeon, Comparative Analysis of Mental Health Knowledge of the General Population: Analysis of Ment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 Survey 2021,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2022), Vol.30, No.1, pp.38-45.
DOI: <https://doi.org/10.22722/KJPM.2022.30.1.38>
- [4] C. M. Kelly, A. F. Jorm, Stigma and Mood disorders,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2007), Vol.20, No.1, pp.13-16.
DOI: <https://doi.org/10.1097/YCO.0b013e3280113cf5>
- [5] M. K. Seo, C. N. Kim, Effects of Perceived Stigma on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the Mental Illnes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4), Vol.56, No.4, pp.173-194.
UCI: G704-000330.2004.56.4.013
-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Centre for mental health, 2021 National Ment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 Survey Results Report, (2022)
-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Centre for mental health, 2021 Mental Health Survey Report, (2022)
- [8] J. I. Park, M. N. Jeon,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16), Vol.55, No.4, pp.299-309.
DOI: <https://doi.org/10.4306/jknpa.2016.55.4.299>
- [9] Y. Kim, J. S. Lee, S. Y. Lee, G. H. Park, S. G. Moon, W. M. Jang, The 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 report in 2007, Seoul: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7)
- [10] H. J. Song, S. S. Kim,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Schizophrenia through newspaper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1), Vol.22, No.6, pp.375-384.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6.375>
- [11] M. K. Seo, Survey on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Mental Illness, [NHRC] Data publish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08)
- [12] P. Corrigan,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2004), Vol.59, No.7, pp.614-625.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59.7.614>
- [13] E. A. Stefanovics, R. A. Rosenheck, H. He, A. Ofori-Atta, M. Cavalcanti, C. Chiles, Medical student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across five nation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16), Vol.204, No.12, pp.909-915.
DOI: <https://doi.org/10.1097/NMD.0000000000000610>
- [14] J. G. Lee, Y. S. Lee, Y. S. Choi, H. S. Chang, M. Y. Lee, The Changes of the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of the Mental Health Professional Trainees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Cours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iatry*, (2003), Vol.8, No.2, pp.81-87.

- [15] H. S. Wallach, Changes in attitudes towards mental illness following exposure,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004), Vol.40, pp.235-248.
DOI: <https://doi.org/10.1023/B:COMH.0000026997.92083.4d>
- [16] G. Y. Kang, M. R. Song, D. K. Lee, G. S. Lim, A. Y. Cha, S. Choi, Comparison Recognition, Attitude, Knowledge Toward Mental Illness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Business Convergence*, (2022), Vol.7, No.2, pp.23-29.
DOI: <https://doi.org/10.31152/JB.2022.05.7.2.23>
- [17] J. E. Park, Affecting Factors on Discriminatory Behavior toward Mentally Disabled i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021), Vol.33, No.4, pp.969-981.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21.8.33.4.969>
- [18] M. S. Suh, A Subjectivity Study on the Attitudes toward Mental Disorde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17), Vol.1, No.2, pp.45-57.
- [19] Y. H. Jung, J. S. Choi, E. H. Kim, J. S. Kim, H. G. Choi, A Study on the Stigma hel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against Mental Illness and Mentally Ill Pati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 (2008), Vol.9, No.2, pp.195-210.
UCI: G704-001649.2008.9.2.002
- [20] Y. H. Cho, Effects of Mental health clinical practice on the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social distance, psychiatry nurses' imag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8), Vol.9, No.11, pp.371-37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11.371>
- [21] E. A. Song, H. J. An, Experience Process of Reducing Prejudices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in Psychiatric War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16), Vol.25, No.1, pp.37-47.
DOI: <https://dx.doi.org/10.12934/Jkpmhn.2016.25.1.37>
- [22] W. W. Lee, E. J. Chang, C. H. Jung, The Attitudes and Concepts toward Mental Illness of Medical Students' and Nursing Students': Effects of Psychiatric Clerkship,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iatry*, (2001), Vol.6, No.2, pp.166-176.
- [23] S. J. Yoon, E. K. Byun, J. S. Ha,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Practicum Satisfaction and Attitudes toward Mental Disorder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Social Welfare Students Who Experienced Psychiatric Practicum,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007), Vol.11, No.2, pp.106-130.
UCI: G704-001776.2007.11.2.003
- [24] C. N. Kim, Development of the Social Stigma Scale of Mental Illness Pati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3), Vol.8, No.3, pp.595-617.
- [25] J. H. So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Discriminatory Behaviors and Prejud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gainst the Mental Illnes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019), Vol.17, No.2, pp.63-70.
DOI: <https://dx.doi.org/10.22678/JIC.2019.17.2.063>
- [26] C. H. Noh, Comparative Study on the Cogni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00), Vol.9, No.2, pp.145-155.
- [27] A. Yamashita, T. Nakajima, Nursing Students' Use of Recovery Storie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Their Experiences: A Qualitative Study, *Nursing Reports*, (2022), Vol.12, No.3, pp.610-619.
DOI: <https://doi.org/10.3390/nursrep12030060>
- [28] E. Y. Ahn, H. K. Lee, Effect of Nurse's Percep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of Contact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on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2022), Vol.39, No.2, pp.205-219.
DOI: <https://doi.org/10.12925/JKOCS.2022.39.2.205>
- [29] S. Y. Lee, K. H. Lee, Social Distance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s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6), Vol.25, No.4, pp.356-366.
DOI: <http://doi.org/10.12934/Jkpmhn.2016.25.4.356>